

다시쓰기 관점에서 본
『안네의 일기(*Anne Frank: The Diary Of a Young Girl*)』
영한 번역본 비교

김민서 김순영*
(동국대-서울)

1. 들어가며

홀로코스트¹⁾ 문학의 대표작품인 『안네의 일기』²⁾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한 유대인 소녀가 나치 독일군의 눈을 피해 숨어 지냈던 체험을 기록한 일기체

* 교신저자, 동국대학교 영어통번역학과 교수, 전자우편: kimsy@dongguk.edu

- 1) ‘홀로코스트(Holocaust)’는 이스라엘 국민들 스스로가 쇼아(Shoah)를 번역한 용어이며, 그때부터 미국과 독일에서는 ‘유대인 인종 학살’이란 뜻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김승렬 외 2008: 44).
- 2) 원제인 *Het Achter-huis*는 “은신처”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원제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그런지 영어로 번역될 때는 *The Diary of a Young Girl* 이라는 제목으로 변경되어 출간되었다. 한국에서 널리 알려진 『안네의 일기』라는 제목은 1959년에 미국 할리우드에서 제작된 영화 *The Diary of Anne Frank* 에서 유래했다(출처: 나무위키 <https://namu.wiki>).

수기 형식으로 된 작품이다. 주인공 안네가 13세 때 생일선물로 받은 일기장에 ‘키티’라는 이름을 붙여 친구에게 고백하듯 써내려간 이 책에는 사춘기 소녀 안네의 눈에 비친 전쟁의 참상과 은신처 생활을 하며 겪은 괴로움, 십대 소녀로서의 꿈과 고민 등이 기술되어 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안네의 일기』³⁾가 책으로 나온 것은 1947년으로, 1945년에 안네가 사망한 이후 아버지 오토 프랑크가 안네의 일기 초본(오리지널 일기)과 안네 자신이 정서하여 다시 쓴 수정본(수정 원고)을 상호보완하는 형태로 편집하여 펴낸 것이다. 이 때문에 진위여부에 대한 논란을 겪기도 했으며⁴⁾, 류진상(2013: 90)은 이 작품이 “원저자와 편저자 사이에서의 저작자의 확정, 본 텍스트와 메타 텍스트 사이에서의 원본의 확정 같은 문학의 형식 문제에 있어서 지극히 모호한 성격을 띠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문학작품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런가하면, 다시쓰기의 관점에서 작품의 해석을 시도한 르페브르(Lefevre 1992: 59)는 ‘안네의 일기 원본, 1947년 네덜란드어본, 그리고 이후 1986년에 네덜란드 국립전쟁자료조사연구소(State Institute for War Documentation)에서 엮어낸 네덜란드어 종합본 비교를 통해 안네 스스로, 그리고 타자에 의해 안네의 이미지가 구축되어가는 과정’을 논의했다. 또한, 네덜란드어본에서 독일어로 번역된 안네의 일기를 통해서 문화 간 전이를 통해 새롭게 ‘구축’되는 안네의 이미지를 논의하였다. 그의 관찰에 따르면, 각각의 텍스트가 쓰일 당시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안네의 이미지는 다르게 구축되는데, 예를 들어, 처음 일기를 쓸 당시의 십대 소녀 안네와 자신의 일기를 책으로 펴내기로 마음먹으면서 ‘스스로 다시쓰기(auto-editing)’를 행하는 저자 안네, 네덜란드어 초판본에서 아버지와 편집자에 의해 일부 내용이 걸러지고 누락되면서 다시 쓰인 안네, 후에 네덜란드어 종합본으로 엮는 과정에서, 독일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다시 영어로 번역되면서 안네의 이미지는 각기 달리 나타난다는 것이다. 르페브르는 이처럼 달리 구성되는 안네의 이미지는 각각의 텍스트가 쓰일 당시의 이데올로기에 따른 것이라 설명한다.

1947년 네덜란드어본이 첫 출간된 이후 『안네의 일기』는 67개 언어로 번역

-
- 3)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본 연구 전반에서 반드시 원제를 표기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명을 모두 『안네의 일기』로 표기하기로 한다.
4) 위키백과 참조.

되었으며, 세계적으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이다(김승렬 외 2008: 41). 우리나라에서는 1954년 일조각에서 유효숙 번역, 『별은窸너머 : 안네의日記』라는 제목으로 처음 소개된 이후 꾸준히 재번역이 이루어져 현재까지 160여종의 번역본이 나와 있다.

본 연구는 1954년 국내 첫 번역본 출간 이후 오랜 기간에 걸쳐 수많은 번역본이 나오는 과정에서 안네의 이미지가 어떻게 ‘유지’ 혹은 ‘변형’되며, (재)구성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안네의 일기』 영한 번역본 중 각기 다른 시기에 쓰인 세 편을 비교대상으로 하여 안네의 이미지가 구성되는 방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번역본 비교는 크게 텍스트 내적 요소와 텍스트 외적 요소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입수가 가능한 번역본 중 시기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번역본을 선택함으로써 해당 시기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영향을 미치는 이데올로기에 따라 (재)구축되는 안네의 이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텍스트 내적 요소로는 격식성, 이데올로기적 표현, 감정표현을 위주로 텍스트를 비교하였으며, 텍스트 외적 요소로는 표지, 속표지, 역자후기를 통하여 외형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번역가의 이데올로기와 번역이 이루어질 당시 수용자 문학 시스템 내의 중심 시학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번역에 의해 투사되어 문학의 이미지를 결정’한다는 르페브르(1992: 41)의 말처럼 번역이 어느 한 시점, 한 지점에 머물러 있는 고착화된 결과물이 아니라 텍스트를 둘러싼 시대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다시쓰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진화해가는 것임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 2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근간이 되는 르페브르의 다시쓰기와 이데올로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 아울러 『안네의 일기』 텍스트 변천과정을 알아본다. 이어 제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영한 번역본 세 편에 대해 소개하고, 각 번역본의 텍스트 내적 특성과 외적 특성을 비교분석해본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비교분석 결과를 정리한다.

2. 다시쓰기, 다시 쓴 『안네의 일기』

Translation is, of course, a rewriting of an original text. All rewritings, whatever their intention, reflect a certain ideology and a poetics and as such manipulate literature to function in a given society in a given way. Rewriting is manipulation, undertaken in the service of power, and in its positive aspect can help in the evolution of a literature and a society (Lefevere 1990: vii).

2.1 다시쓰기(Rewriting)

르페브르(1992)는 다시쓰기가 문학과 번역행위를 둘러싼 다양한 권력관계를 통해 조작되는 활동이며, 이러한 활동의 저변에는 이데올로기와 문학사조가 지배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데올로기란 인간의 행동을 좌우하는 의식의 체계로서 문학과 번역생산의 관계에서는 필수불가결한 관계로 연결되고 있다. 다시쓰기 관점에서 문학 텍스트의 다시쓰기와 재수용에 대해 연구한 김희진(2013: 4)은 르페브르의 이데올로기를 아래와 같이 요약하고 있다.

이데올로기란 먼데이(Munday, 2006: 182)가 지적하듯, 정치적 이념에만 국한되는 의미가 아니다. 문학 시스템(literary system) 내에서 이루어지는 번역행위와 관련하여 르페브르가 사용하는 이 용어는 번역자 스스로의, 혹은 번역을 의뢰하는 개인이나 기관 등의 경제적 후원자(patronage)의 지위에서 번역자에게 부여하는 번역 전략으로서의 가치관 혹은 신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다 광의의 개념이다.

이는 문학과 번역의 관계가 “텍스트만의 문제가 아닌 ‘주체’와 ‘상황’의 문제(강지혜 2007: 8)”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데올로기는 번역주체에게 부여되는 특정한 상황맥락을 선도하는 신념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결과적으로, 원천 문화권의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텍스트가 목표 문화권으로 전이 될 때에는 해당 문화권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에 따라 번역이 재생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르페브르(1992: 39)는 “번역자의 언어적 고려사항과 출판인의 이데올로기적 고려사항이 충돌할 경우에는 출판인의 이데올로기가 최종적인 판단

의 잣대로 작용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견해에 대한 사례로서 『안네의 일기(Anne Frank's Diaries)』를 제시하였다.

다음 절에서 우선 『안네의 일기』의 텍스트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그 과정 속에서 다시 쓰인 『안네의 일기』에 대한 르페브르의 관찰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2 『안네의 일기』 텍스트 변천사

『안네의 일기』는 1947년 6월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곤탁터사에서 *Het Achterhuis*(은신처)라는 제목으로 처음 발표되었다. 이후 1950년에 안네의 아버지인 오토 프랑크(Otto Frank)와 나치를 피해 네덜란드로 이민해 왔던 저널리스트 안네리제 슈츠(Anneliese Schütz)가 독일어로 번역하여 독일 전역에 소개되었다. 1950년에는 프랑스어본이 출판되었고 또다시 1952년에는 영국과 미국에서도 *Anne Frank: The Diary Of a Young Girl*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이후 “세계적인 슈퍼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2009년에는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 Memory of the World 로 등재되기에 이르렀다. 그로 인해 이 작품은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대중적 인지도를 지닌 홀로코스트 문학으로 자리매김 되어있다(류진상 2013: 89).” 안네의 아버지 오토 프랑크의 사망 후, 판권을 물려받은 안네 프랑크 재단이 모든 증거 자료들에 대한 조사를 거쳐 안네의 일기 초본(a텍스트), 안네 자신의 수정본(b텍스트), 그리고 오토 프랑크의 초판본(c텍스트)를 함께 실은 <학술 자료판>이 1986년에 네덜란드 국립전쟁자료조사 연구소에 의해 출판되었으며, 1991년에는 앞의 책을 독일어로 번역했던 미르얌 프레슬러(Mirjam Pressler)에 의해 편집본이 출판되었다. 이처럼 독특한 텍스트 변천사로 인하여 앞서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원저자와 편저자 사이에서의 저작자의 확정, 원본의 확정”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이러한 텍스트 변천의 과정을 다시쓰기 과정으로 본 르페브르는 『안네의 일기(Anne Frank's Diaries)』의 각 텍스트에 대한 특성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1992: 59-72). 첫째, 1947년 초판본 『은신처 *Het Achterhui*』는 안네가 쓴 일기 초본과는 상당히 다르게 편집되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노골적인 묘사와 안네의 성적 호기심이 묘사된 부분이 누락되면서, 그 당시의 14

살 소녀의 시점에서 특정한 대사(lines)를 생략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이렇게 다시쓰기가 이루어진 안네는 일기 초본을 쓰던 당시의 소녀 안네와는 전혀 다른 이미지로 구축된다. 둘째, 1950년에 오토 프랑크의 친구 안네리제 슈츠가 번역한 독일어본에서 안네의 일기는 심한 변형을 겪게 된다. 독일인에게 “모욕적(insulting)”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과 잔인한 서술적 묘사는 완화되거나 아예 삭제하는 전략을 취하게 된다. 그 결과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유태인의 고통은 실제로 겪었던 고통보다 훨씬 덜 가혹한 표현으로 조작되면서, 의식적으로나 또는 무의식적으로 안네를 한 시대의 적당한 “어린 사춘기 소녀의 문화적 전형(cultural stereotype)”으로 변형시킨다. 마지막으로 1952년도의 영어본에서는 원전의 네덜란드어와 독일어의 혼합된 형태를 그대로 번역에 수용하면서 등장인물들의 실제 사실을 전달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결과 독일어 번역보다는 “등장인물들(characters)”의 삶이 좀 더 치명적인 공포 속에 살았고 현실로부터 단절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각 나라의 시대적 상황맥락에 따라 안네의 이미지가 굴절되고 변형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3. 분석 텍스트 소개 및 논의

3.1 『안네의 일기』 영한 번역본의 변천과정 및 분석방법

김병철(1998: 184)의 1950년대 번역문학 서지정보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나온 『안네의 일기』 번역본은 1954년 일조각에서 펴낸 유효숙 번역가의 『별은쫓너머: 안네의日記』이다. 이후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다섯 편의 번역본이 각기 다른 출판사를 통해 출간되었다. 특히 1960년에 나온 두 번역본은 동일한 해에 나온 작품이지만 각각 다른 특성을 보인다. 성문각에서 출판한 『안네 프랑크의 일기』는 전해린 번역가가 희곡으로 번역한 독한대역본이다. 이 작품의 원본은 독일 작가들인 구드리치, 프란시스 하케트, 엘버트가 오리지널 작품을 각색한 독일어 희곡으로서 1956년 풀리처상을 비롯하여 수많은 상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하다. 또 다른 작품으로는 동학사에서 펴낸 영한 완역본으로 원창업 번역가의 『안네의日記』이다. 이후 독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출판사들이

장르의 변화를 모색하기도 하면서, 매년 끊임없이 재번역본을 내놓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여전히 출판되고 있다⁵⁾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안네의 일기』의 대부분은 1952년 영국과 미국에서 출판된 *Anne Frank: The Diary Of a Young Girl*을 원천텍스트로 삼고 있다. 예외적으로 1995년 문학사상사에서 출판된 『무삭제 완전판 안네의 일기』는 원천텍스트가 대단히 포괄적인 경우이다.⁶⁾

본 연구에서는 전자를 원천 텍스트⁷⁾로 한 두 작품과 후자를 원천 텍스트로 하는 한 작품을 선정하여 각각에서 안네의 이미지가 어떻게 유지 혹은 변형되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세 작품을 보면, 먼저 1960년도의 원창업 번역본은 국립중앙도서관 보유 최초의 역본이고, 두 번째 2009년의 이진영 번역본은 동일 번역가가 1971년에 처음 번역한 이후 동일 출판사에서 여러 번 재출간되어 2009년 4월에 제5판 1쇄가 나왔으며, 이중 가장 최근에 출판된 역본으로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1995년도의 홍경호 번역본은 무삭제 완전판으로, 안네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 판권을 갖게 된 안네 프랑크 재단이 10여 년간 안네의 일기 ‘a,b,c 텍스트’를 검토하고 필적 감정까지 하여, 1991년에 펴낸 오리지널 일기

5) 『안네 프랑크의 일기』 우리나라의 시대별 번역본 보유현황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내역- 총 166권)

연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합계
보유 현황	5	9	19	46	65	22	166

6) 1995년, <문학사상사>에서 홍경호 한양대 독문과 교수가 번역한 책이다. 역자가 중심 텍스트로 삼은 것은 독일어로 번역된 <안네의 일기 (Anne Frank Tagebuch)> 완전판이며, 이 외에도 <안네의 일기> 완전판의 영어 독일어 일어 프랑스어 번역본과 안네 재단이 출간한 <학술자료판>을 토대로 하고 있다(홍경호 1995: 역자후기). 이는 안네 프랑크 재단에서 <학술 자료판>을 토대로 한 단축판에 비해 약 25퍼센트 가량 내용이 늘어난 “완전판”이고, <문학사상사>가 ‘완전판’ 독점 출판 계약을 맺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유일무이하다.

7) 영어본 역시 영미 출판사들에서 꾸준히 새로운 책이 출간되고 있으나, 결텍스트에서 차이가 있을 뿐 내용면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원천텍스트의 내용만을 참조대상으로 삼았으므로, 편의상 1993년 미국 반탐북스(Bantam Books)에서 출판된 *ANNE FRANK: THE DIARY OF A YOUNG GIRL*을 텍스트분석에 활용하였음을 밝혀둔다.

를 저본으로 하고 있다.

아래는 분석대상 텍스트를 번역가, 제목, 출판년도, 출판사로 분류한 표이다. 편의상 언급한 순서대로 TT1, TT2, TT3로 표기하기로 한다.

〈표 1〉 『안네의 일기(Anne Frank: The Diary Of a Young Girl)』 분석 텍스트

분류	역자	제 목	출판년도	출판사	비 고
TT1	원창엽	『안네의日記』	1960	동학사	1957년에 발행한 영문 포켓판을 원천 텍스트로 함을 밝힘
TT2	이건영	『안네의 일기』	2009	문예 출판사	원천텍스트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내용상으로 볼 때 TT1과 같은 것으로 추정됨
TT3	홍경호	『무삭제 완전판 안네의 일기』	1995	문학사상사	원천텍스트가 독일어 중심임을 밝힘. 무삭제 완전판

이상의 세 번역본을 각각 텍스트 외적 요소와 텍스트 내적 요소로 나누어 비교해볼 것이다. 먼저 외형적인 특성 비교에서는 세 작품을 같이 논의대상에 포함하여 살펴볼 것이지만, 내용적인 특성 비교에서는 동일한 원전을 바탕으로 한 TT1과 TT2를 대조하여 검토하고, 다음으로 무삭제 완전판인 TT3의 경우는 TT1과 TT2 대비 내용적인 측면에서 추가된 부분 위주로 살펴볼 것이다.

3.2 외형적 특성 분석

출판사의 기획으로 디자인되고 편집되는 결텍스트에는 해당 시기별로 중시되는 이데올로기와 상황에 따른 영향이 고스란히 드러나며, 독자에게 작품의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박선희(2015)의 정의⁸⁾를 바탕으로 표지, 속표지, 역자후기로 한정하여 번역본의 외형적 특성을 분석해볼 것이다.

3.2.1 표지

책의 표지는 독자들에게 제목과 더불어 그 책에 대한 첫인상을 각인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분석대상 텍스트인 세 번역본의 표지는 색상, 삽화, 제목의 표기 및 배치 등 여러 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먼저, TT1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노란색 바탕에 영어 원제목을 상단에 표기하고, 그 아래에 붉은색의 굵은 글씨에 국한문 혼용으로 『안네의日記』가 표기되어 있다. 전면의 표지 삽화는 남학생이 책을 펴놓고 어딘가를 주시하고 있는 포즈를 취하는 그림이며, 뒤표지 역시 남학생이 앨범을 펴놓고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이다. 이 책의 저자이자 주인공이 ‘소녀 안네’임에도 불구하고 소년이 표지에 등장한 데에는 남아선



〈TT1의 앞표지와 뒤표지〉

호사상이 강했던 1960년대의 시대상황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당시의 어려웠던 사회상황을 고려해보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 책의 주 독자층 역시 교육기회를 얻기가 수월치 않았던 소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나은 교육기회를 얻을 수 있는 남학생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표지가 주는 느낌만으로 본다면 이 책에서 소녀의 이미지를 떠올리기는 쉽지 않다. 또한 표지 어디에도 번역자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2009년에 출간된 TT2를 보면, 앞표지를 가득 채우고 있는 소녀 안네의 사진이 눈에 띄며, 표지의 색 역시 분홍으로 TT1에 비하여 훨씬 부드러운 소녀적

- 8) 박선희(2015: 24-26)는 주네트가 정의한 곁텍스트와 번역문의 곁텍스트는 원문과 번역문이 근원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번역문에는 “번역자 곁텍스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에서는 곁텍스트 요소들을 공간적 차원을 중심으로 주변텍스트와 바깥텍스트로 구분한 후, 다시 주변텍스트들을 화용적 특성의 발신자를 기준으로 저자 주변텍스트, 편집자 주변텍스트, 번역자 주변 텍스트, 제삼자 주변텍스트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박선희(2015: 19)는 주네트의 견해를 인용해서 곁텍스트의 특성 중 화용적 특성에는 발화 내적인 힘이 담겨 있어서 “표지나 속표지에 담긴 전반적인 정보들은 편집자나 저자의 ‘의도’나 ‘해석’을 알게 해주며” 결국 이는 순전히 정보만을 전달하는 의미가 아님을 암시하고 있다.

감성을 느끼게 해준다. 앞표지 중간 부분에는 한글제목이 위치해 있고, 하단에 저자와 번역가 이름이 동시에 표기되어 있다. 뒤표지 윗부분에는 안네의 일기의 한 구절이 명시되어 있고, 중간부분에는 책의 주제에 해당하는 글귀로서 “암울했던 나치 치하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았던 안네, 그의 일기를 통해 사춘기에 접어든 한 어린 소녀의 순수한 내면세계를 만난다”라고 표기되어 있다. 소녀의 이미지를 찾아보기 힘들었던 TT1의 경우와 달리 TT2는 안네의 사진, 표지의 색깔, ‘어린 소녀의 순수한 내면세계’ 등과 같은 결텍스트를 통하여 안네의 소녀 이미지를 매우 명시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다음으로 1995년에 출간된 TT3의 표지에는 “무삭제 완전판”이라는 소제목을 추가하여 기존의 다른 번역본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앞뒤 표지에 유럽의 도시전경을 삽입하였으며, 앞표지에는 소녀가 아닌 숙녀가 된 안네의 사진을 삽입하여 TT2에서보다 훨씬 성숙한 이미지의 안네를 보여주고 있다. 뒤표지에는 완전판의 문학적 가치를 소개하며 각종 대중매체에서 언급된 내용을 추가하여 이 책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보인다.

종합해보면, TT1은 1960년대의 어려웠던 사회상이 반영되어 소녀적 이미지보다는 청소년의 이미지를 더 강하게 앞세우고 있고, TT2에서는 순수한 소녀 안네의 이미지를, 그리고 TT3에서는 ‘무삭제 완전판’이라는 가치의 부여와 더불어 성숙한 안네의 이미지 전달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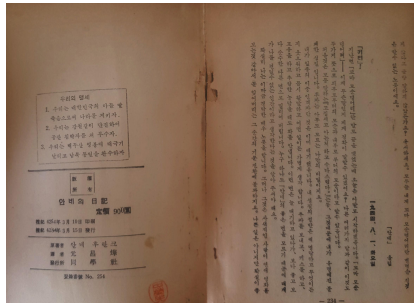
〈그림 2의 앞표지와 뒤표지〉



〈TT3의 앞표지와 뒤표지〉

3.2.2 속표지

속표지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이는 것은 TT1의 간기면이다. 오른쪽 쪽 사진은 마지막 장에 나오는 간기면(copyright page)으로, 이 장의 맨 윗부분에는 “우리의 맹세”라는 소제목이 나와 있고, 중간부분에 版權所有(판권소유)라는 직인이 찍혀있다. 그 아랫부분에는 가격표기, 단기 4294년이라는 출판년도, 원저자명, 역자명, 그리고 발행소 순으로 표기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 등록번호가



〈TT1 번역본의 속표지〉

숫자로 새겨져 있다. 이 간기면의 제일 두드러지는 부분은 원전에 없었던 부분을 새롭게 추가해 넣은 “우리의 맹세”라는 글귀이다. 실선의 박스 안에 표기된 “우리의 맹세”는 “1. 우리는 대한민국의 아들 딸 죽음으로서 나라를 지키자 2. 우리는 강철같이 단결하여 공산 침략자를 쳐부수자 3. 우리는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 날리고 남북통일을 완수하자” 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출판정책의 일환으로 그 당시에 출판되었던 특정 출판물에는 위의 글귀가 새겨져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다. 이를 통해 암묵적으로 “책 한 권을 읽더라도 철저한 반공정신을 심어주려고 한 그 시대의 정치상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숙자 2010:17)”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출판정책은 번역 관련 주체들에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영향을 끼쳐 그 시대의 상황맥락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라 짐작된다.

TT2의 속표지에서는 안네와 관련된 실제 사진들이 4장 삽입되었다. 안네의 가족사진, 은신처 사람들의 실제 사진들, 안네 일가의 은신처에 있던 건물 사진, 선물 받은 일기장 키티의 겉모습과 내부 사진 등 안네의 유품을 전시해 놓은 듯한 디자인으로 기획되어 있다. 이를 통해 작품 속의 주인공이 어린 소녀이고 실존 인물이었음을 각인시킨다. TT3 역시 안네의 가족사진과 주변 인물들의 사진을 삽입한 점에서는 TT2와 같다. 그러나 TT2와 달리 수용소의 사진을 추가하여 잔혹했던 시대상을 상기시킨다.

3.2.3 역자 후기

세 번째로 “역자 후기”를 살펴보면, TT1의 역자는 안네가 겪은 전쟁의 참상에 대해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것을 다음의 대목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씩터오르는 小女들의 순정이 무서운 전쟁의 파괴 밑에서 얼마나 무참히도 짓밟히는지, (.....) 전쟁이 가져 오는 최대의 최악 인간성의 파괴를 소름이 끼치도록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전쟁에 시달릴지라도 중국에 가서는 인간 정신이 그 숭고한 빛을 나타낸다는 것을 (.....)(원창엽: 가로쓰기 p.10)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은 민족으로서 전쟁의 참혹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이 책이 번역된 1960년을 전후한 시기는 앞서 “우리의 맹세”에서 볼 수 있듯이 반공정신과 애국심을 바탕으로 민족정신의 함양이 주된 이데올로기를 형성하고 있던 시기이다. 이러한 국가적 정서는 크게는 출판업계,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번역가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이러한 영향이 역자후기에도 고스란히 드러나 전쟁에 대한 참상을 더욱 부각시키며, 이를 인간 정신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번역가의 태도는 텍스트 내적으로도 영향을 미쳐 힘겨운 현실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고 용감한 안네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쪽으로 나타났을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TT2는 역자후기가 따로 언급되지 않았고, TT3에서는 본문이 끝나는 뒷부분에 3쪽에 걸쳐 상세히 역자후기가 실려 있다. TT3의 역자후기는 “안네의 아버지 오토 프랑크는 딸 안네가 써 놓은 일기를 한 쪽 부분은 거의 말살하고 다른 반쪽만을 주제로 삼아 세상에 내놓음으로써, 진실을 왜곡하고 기록을 변조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종전의 축소·편집본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다. 또한, 종전의 축소판이 나치 독일에 대한 안네의 항의와 세계를 향한 고발에만 집중된 반쪽 진실만을 전했다면, 완전판에서는 안네의 성적인 관심과 고백도 내포된 사랑의 행태를 드러내 보이며 성숙하고 건전한 이성관을 제시한다고 언급함으로써 이전의 안네와는 다른 이미지의 안네를 보여주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표지와 속표지 모두 안네의 이미지를 특정 방

향으로 구축하고 구체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역자 후기를 통해 이러한 방향성이 보다 명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에서는 내용적 특성의 비교를 통해 안네의 이미지가 어떻게 구축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3.3 내용적 특성 분석

내용적인 특성에서는 우선 동일한 원전을 바탕으로 한 TT1과 TT2에서 나타나는 안네의 이미지 변화를 먼저 비교해보고, 무삭제 완전판인 TT3의 경우는 앞의 두 번역본에서 추가된 부분 위주로 살펴볼 것이다.

내용 구성면에서 보면, TT1은 전반적인 일기의 흐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정도이지만 일부 누락된 낱자도 있고 축약된 단락도 확인된다. 이와 달리 TT2는 원문의 내용에 누락이 없는 비교적 충실한 번역임을 알 수 있다. 내용적 특성 분석은 크게 격식성, 이데올로기적 표현, 섬세한 감정표현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3.3.1 격식성

작품의 이미지는 등장인물의 언어적인 태도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주인공 안네는 14살 소녀이고, 일기의 대화자인 키티에게 모든 속마음을 고백하는 내용이기에, 번역가가 안네와 키티와의 격식성을 어떻게 채택하느냐는 안네의 이미지 구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생일날 선물로 받은 일기장에 “키티”라는 이름을 지어주며 안네가 키티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상황을 보면, 원전 “I shall call my friend Kitty(p. 3)”에서 확인되듯이 친구로 삼는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다음의 예시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예1)

ST : I expect I have thoroughly bored you with my long-winded descriptions of our dwelling. But still I think you should know where we've landed. (p. 19)

TT1 : 우리의 피신처를 너무 오랫동안 지루하게 설명을 해서 실증이 났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어디 머물렀는가는 아셔야 한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세로쓰기, p. 36)

TT2 : 어제는 너무 자세히 우리 은신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느라고 싫증이 났겠지? 그렇지만 넌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니. (가로쓰기, p. 42)

예2)

ST : Then I had a chance, for the first time since our arrival, to tell you all about it, and at the same time to realize myself what had actually happened to me and what was still going to happen.
Yours, Anne.

(pp. 19-20)

TT1 : 수요일에야 여기를 와서 처음 당신에게 얘기를 드리고 또한 자기에게 실제로 이러한 사건 이제부터 일어나려 하는 일들은 그려 볼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네 올림 (p. 37)

TT2 : 이제야 처음으로 너에게 이야기하고, 아울러 나 자신도 지금 내 주위의 현실과 앞으로 닥쳐올 몸서리쳐지는 일들을 새삼스러이 실감하게 되는거야. 안네. (p. 43)

위의 두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TT1과 TT2는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확연히 구분되고 있다. 예1)에서, TT1은 “났을 줄 압니다”와 “아셔야”로 번역된 극존칭 어구로서 아주높임에 해당하는 합쇼체를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안네와 키티의 관계는 친구라기보다는 상하관계, 상당한 거리감이 느껴지는 관계로 설정된다. 아마도 앞서 표지를 통한 외형적 특성에서 살펴보았듯이 반공정신을 강조하는 당시의 시대상황, ‘소녀 안네’의 이미지 보다는 ‘청소년’의 이미지에 더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격식성이 두드러진 표현으로 설정하였으리라 짐작된다. 그런가하면 TT2에서는 “났겠지?”, “알아야” 등과 같이 아주낮춤 전략인 ‘해체’의 비격식체를 사용하고 있다. 예시2)의 호칭번역에서도 이러한 격식성의 차이는 그대로 유지된다. 원문에서 “you”는 키티를 지칭하는데 TT1은 이를 “당신”, TT2는 “너”로, 마지막 글쓴이를 언급한 부분에서는 TT1은 “「안네」올림”, TT2는 “안네”로 번역하고 있다.

이로 인해 원문에서 친구관계로 설정되었던 키티가 TT1에서는 안네의 웃어

른처럼, TT2에서는 편안한 친구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언어태도의 차이로 인해 TT1의 안네는 웃어른에 대한 공경심이 엿보이는 예절바른 안네가 되었고, TT2에서는 감정에 솔직하고 친근한 안네의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비격식체는 격식성을 낮추어 번역문을 친근하게 느끼도록 하고, 독자들이 주인공과 더 동질감을 느끼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다(김순미 2010: 138). 이는 앞서 표지를 통해 살펴보았던 결과와도 맞아맞아있는데, 표지에서 소녀의 이미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던 TT1은 내용적인 면에서도 소녀 안네를 순종적이고 예의바른 이미지로 구축하고 있다. 반면에 표지에서 안네의 소녀적 이미지를 강조했던 TT2는 격식성 면에서도 친근한 소녀의 말투를 채택하여 안네의 소녀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3.3.2 이데올로기적 표현

다음은 작품의 시대에 따른 이데올로기적 표현을 살펴보기로 하자.

TT1이 출판된 1960년도는 해방 이후 이어진 전쟁과 분단 상황, 강력한 군사통치, 동서 냉전체제의 지배적 이데올로기가 작용하던 시기이다. 이러한 냉전체제의 이데올로기는 안네의 일기 속에서 네덜란드와 독일로 구분되어 우리나라의 상황맥락에 맞게 다시쓰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원문의 “Jewish friends”는 “유대인 동포들이”로 번역하여 유대인들의 강한 결속력과 끈끈함이 느껴지는 선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the Germans”에 대해서는 “독일놈들”로 독일군을 지칭하는 대명사 “they”는 “그놈들”로 표현하여 적군의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 반면에 TT2에서는 이러한 정치 이데올로기적 표현은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다음의 예시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다음의 배경은 독일군과 영국군이 네덜란드에서 전쟁이 한창일 때이다. 안네는 밤사이의 대포소리가 너무 심해서 스스로 피난에 대비해 물건들을 가방에 꾸러 놓으며, 네덜란드의 전시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예3)

ST : The whole of Holland is being punished for the strikes which have been going on in many parts of the country. Therefore a state of siege has been declared and everyone gets one butter coupon less. What naughty little children! (p. 80)

TT1 : 전 「홀랜드」는 어느 시골을 막론하고 한참 반동분자들을 숙청하고
 있는 판이니깐요. 그러나 포위된 수용소만은 별도라고나 할까요.
 누구나 한번은 대가가 없어도 뼈타를 얻을 수 있는 곳이지요 하지
 만 그거야 어리석은 짓이니까! (세로쓰기, p. 101)

TT2 : 네덜란드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파업 때문에 아우성이야.
 계엄령이 선포되고 버터 배급권이 줄어들었어. 아, 정말 지긋지긋
 한 독일 사람들이야! (가로쓰기, p. 120)

네덜란드에서 유대인들의 열악한 실상에 대해 언급하는 이 단락을 보면, 원문의 “being punished for the strikes”는 네덜란드 각지에서 “노동자 파업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상황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TT1에서는 이 부분이 원문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반동분자들을 숙청하고 있는 판이니깐요”로 표현되고 있다. “반동분자”란 공산주의 국가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로서 공산주의에 반대되는 세력을 뜻할 때 상대방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용어이며, 숙청이란 암살이나 처형되는 것을 의미한다. 유대인을 억압하는 나치독일의 만행을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남과 북의 상황에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소녀안네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는 표현이다. TT2는 “파업 때문에 아우성이야”로 번역하여, TT1 대비 훨씬 중화된 이미지를 보여준다.

다음의 두 예시에서도 강력한 군사통치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표현이 두드러진다.

예4)

ST : Germans and Jews are the greatest enemies in the world. (p. 40)

TT1 : 독일인과 유대인은 이세상에서 괴물은 원수가 돼 있는 모양입니다.
 (세로쓰기, p. 61)

TT2 : 독일인과 유대인은 숙명적으로 원수인 모양이야. (가로쓰기, p. 69)

예5)

ST : If possible, the English will drop pamphlets one hour beforehand.
 (p. 244)

TT1 : 영국군은 폭격개시 한시간전에 빠라를 뿌린다고 합니다.
 (세로쓰기, p. 213)

TT2 : 가능하면 영국군은 한시간 전에 전단을 뿌릴 거라는 거야.
(가로쓰기, p. 324)

예4) 는 안네 자신도 한 때 독일인이었지만 히틀러가 국적을 빼앗아서 지금은 독일인과 유대인이 적대적인 관계로 대치되고 있는 상황을 토로하는 내용이다. 원문의 “the greatest enemies” 는 직역을 하게 되면 “가장 강력한 적들”을 의미하지만, TT1에서는 이를 “피문은 원수”로 번역하여 독자들에게 “빨간 북한을 상징하는 냉전 체제(임지현 외: 2000:113)”를 연상하게 한다. 이에 따라 의미가 강화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또한 북한의 이미지를 연상하게도 한다. TT2에서는 적대적인 관계가 내재된 어휘인 “원수”로 번역하고 있다. 예5)는 영국군이 상륙작전을 개시했다는 뉴스가 발표되면서, 인근 해안사람들에게 피난경고 방송을 알리는 영국군의 행동지침에 대해 안네가 설명하는 대목이다. 원문의 “pamphlets”은 맥락적 의미를 보면 영국군이 네덜란드 진영에서 곧 상륙작전이 벌어지기 때문에 인근 해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폭격에 대비해 조취를 취하라는 내용을 알리는 인쇄물임을 알 수 있다. TT1에서는 이를 “빠라”로 표현하여, 당시의 남북대치 상황 속에서의 이데올로기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물로 재현하고 있다. TT2에서는 “전단”으로 번역하여 중립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3.3.3 섬세한 감정표현

안네의 이미지는 일기 속 감정표현의 방식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일기의 특성 상 감정의 표현은 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안네의 일기에서도 섬세한 감정들이 여러 곳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TT1과 TT2를 비교하면, TT1은 전체적으로 감정표현에 대해 축약을 하거나 삭제하는 전략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TT2에서는 원문에 충실하거나 혹은 섬세한 감정표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확인된다. 다음의 예시에서 이를 확인해 보고 안네의 이미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살펴보기로 하자.

예6)

ST : I saw my face in the mirror and it looks quite different. My eyes look so clear and deep, my cheeks are pink- which they haven't been for weeks-my mouth is much softer. I look as if I am happy,

and yet there is something so sad in my expression and my smile slips away from my lips as soon as it has come. I'm not happy, because I might know that Peter's thoughts are not with me, and yet I still feel his wonderful eyes upon me and his cool soft cheek against mine. (p. 135)

TT1 : 거울에 얼굴을 비쳐보니 전과는 아주 달라 보였습니다. 눈빛은 맑고 뺨은 - 몇주일동안에 붉어졌으며 입술은 상당히 부드러워졌습니다. 나는 행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 표정에는 무엇이나 쓸쓸한 그늘이 지고 입가에는 웃음이 떠 올랐다가는 금시 사라지고 맙니다. 나는 행복하지 못해요. 「페타가 나와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세로쓰기, p. 137)

TT2 : 거울에 비친 나의 얼굴이 전과는 아주 달라 보이는구나. 눈은 맑고 뺨은 몇 주일 만에 붉은 빛을 띠고 입술은 촉촉이 물기를 머금고 젖어 있어. 난 행복해 보여. 그렇지만 내 표정엔 어딘지 쓸쓸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고, 입가에는 웃음이 떠올랐다간 이내 사라져 버려. 난 행복하지 못해. 페타가 나와 같은 기분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도 나는 나를 응시하는 페타의 빛나는 눈, 불에 달은 페타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불의 감촉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
(가로쓰기, p. 185)

위 단락의 원문을 보면 안네의 풍부한 시적표현이 확인된다. 내용을 보면 페터에게 사랑에 빠져있는 안네의 외면을 세밀하게 묘사하면서 동시에 페터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괴로워하는 내면 묘사도 두드러진다. 마지막 문장에서는 페터에 대한 그리움이 애뜻하게 전달되고 있다. 이에 대해 TT1에서는 앞부분은 내용위주로 번역된 반면에 마지막 문장 페터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번역에서 누락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페터에 대한 감정의 애절함이 원문만큼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된다. 반면에 TT2에서는 전반적으로 원문의 감정표현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안네의 감정을 보다 섬세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시도가 엿보인다. 예를 들어, 원문의 “my mouth is much softer”의 경우 TT1에서는 “입술은 상당히 부드러워졌습니다”로 표현한데 반해, TT2에서는 “촉촉이 물기를 머금고 젖어 있어”로 번역하면서 한층 더 시적 감수성을 고조시키는 효과를 주고 있다. 이러한 섬세한 감정 묘사를 통해 TT2의 안네는 TT1의 안네보다 훨씬 더 감수성이 풍부한 소녀의

이미지로 표현된다.

3.3.4 TT3에서 추가된 내용분석

다음은 무삭제 완전판인 TT3에서 안네의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이 작품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무삭제판”이라는 가치를 부여한 것이 특징으로, 내용적인 측면에서 추가된 부분 위주로 살펴볼 것이다. 먼저 무삭제판의 주된 특성으로는 안네의 사랑에 대한 솔직한 감정표현이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요즘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오로지 페터를 만나는 것뿐입니다 (p. 286)”는 TT3에서만 새롭게 추가된 문장이다. 무삭제판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추가되면서 기존의 번역본보다 훨씬 사랑에 대해 적극적인 안네를 드러내고 있다. 번역가 홍경호는 이 번역본에는 “사춘기 소녀의 성적인 묘사가 추가되었으며 저항문학에 페미니즘 문학의 접목으로 평가되고 있다(홍경호 1995: 11-16)”고 분석하고 있다.

다음은 사춘기로 접어든 안네가 은신처 사람들과의 갈등을 표출하는 대목이다.

예7)

ST : Only great love and devotion can help Elli, Margot, Peter, and me, and none of us gets it. And no one, especially the stupid “know-alls” here, can understand us, because we are much more sensitive and much more advances in our thoughts than anyone here would ever imagine in their wildest dreams. (p. 163)

TT1 : 원문 번역 누락

TT2 : 숭고한 애정만이 엘리나 언니나 페터나 나를 구원할 수 있겠지.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그것을 받지 못하고 있어. 그런데 이 집의 ‘아는 체하는’ 바보 어른들은 아무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거야. 우리는 여기 어른들이 상상도 못할 만큼 몹시 감수성이 강하고 정신적으로는 성장되어 있어. (가로쓰기, pp. 220-221)

TT3 : 베프와 언니와 페터, 그리고 나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위대한 애정과 헌신, 오로지 그것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한 사람, 특히 이곳의 바보스럽고 ‘잘난 척만 하는 아 주머니들’은 누구 한 사람 우리의 기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곳 어

른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감수성이 예민하고, 훨씬 진보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애정 도대체 애정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애정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입니다. 애정이란 상대를 이해하는 것, 상대를 배려하는 것,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대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게 내다보면 그것은 육체적인 애정에도 적용됩니다.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아이가 있든 없든, 그런 건 문제가 안 됩니다. 비록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잃었다고 해도 만약 누군가 옆에 있어 주고 죽을 때까지 자신을 이해해 준다면, 다른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는 자기 혼자만의 누군가 있다는 걸 안다면, 그런 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가로쓰기, pp. 279)

사춘기를 맞아 내면이 성장하고 있는 안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원문에서는 베프와 언니와 페터 그리고 안네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위대한 애정과 헌신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어른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감수성과 성장한 내면을 지니고 있는데 어른들은 그들의 기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원망하는 내용이다. TT1에서는 이 부분의 번역이 누락되었고, TT2는 기존의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되어 있다. TT3의 경우는 확장판의 추가된 부분으로서 “애정”에 대한 안네의 견해를 덧붙이고 있다. 안네는 “애정이란 상대를 이해하는 것, 상대를 배려하는 것,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대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녀의 생각에서는 지극히 순수하고 사려 깊은 사춘기 소녀의 모습을 확인하게 된다. 또한 안네가 애정이 그 무엇보다도 다른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는 나만의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거침없이 말하는 표현에서는 어른 못지않은 성숙한 애정관을 지니고 있는 안네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독립된 여성으로서의 안네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예8)

ST : I am becoming still more independent of my parents, young as I am, (……) Let me be myself and then I am satisfied. I know that I'm a woman, a woman with inward strength and plenty of courage. (p. 208)

- TT1 : 나는 더욱이 부모님들로부터 독립한 한개의 인간이 되고 있습니다.
 (……) 나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내
 가 여자 - 강한 성격의 용감한 여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로쓰기, p. 181)
- TT2 : 나는 더욱 부모들로부터 독립된 개성을 구비한 인간이 되고 싶어.
 (……) 내가 자유롭게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해. 나는 내가 여
 자 - 강한 성격의 용감한 여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
 (가로쓰기, p. 280)
- TT3 : 나는 이제는 부모님에게서 독립해 혼자서도 굳건히 설 수 있는 완
 전 한 인간이 되고 싶습니다. (……) 나는 나로서 살아가고 싶습니
 다. 그렇게 되면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가
 강한 성격의 용기있는 여자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가로쓰기,
 pp. 355-356)

위의 원문은 1944년 4월 14일 일기의 일부분이다. 처음 일기를 쓴 1942년 6월 14일에 기록하기 시작한 초반부의 내용에 비해 내면이 한층 성숙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성인으로서의 성장을 지향하며 점점 독립된 자아를 꿈꾸는 안네의 심리가 두드러진다. 또 여성으로서의 인간적 고민에 맞닥뜨리지만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가 돋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내적 심리묘사가 두드러진 표현에 대해, TT1은 “독립한 한 개의 인간이 되고 있습니다”로, TT2는 “독립된 개성을 구비한 인간이 되고 싶어”로 표현하고 있으며, TT3에서는 “독립해 혼자서도 굳건히 설 수 있는 완전한 인간이 되고 싶습니다”로 번역하여 독립을 통한 완벽한 인간을 꿈꾸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TT3에서는 “나는 나로서 살아가고 싶습니다”라는 표현이 추가되어 그 누구에게도 의존적이지 않은 “나”로서 우뚝 서고 싶어 하는 의지를 단호하게 드러내면서 안네가 추구하는 독립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3.3 분석소결

이상에서 르페브르가 이야기한 다시쓰기의 관점에서 텍스트 내에 투영되는 안네의 이미지 재구성에 초점을 두고 논의해 보았다. 먼저 외형적인 특성 분석에서는 표지, 속표지, 역자후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표지와 속표지 비교

결과에 따르면 TT1은 소녀 안네의 이미지보다는 청소년의 이미지를 더 강하게 드러내면서 1960년대 우리나라의 시대적 상황에 맞게 다시 쓰인 안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TT1의 역자후기 또한 힘겨운 현실상황에서도 깨끗하고 용감한 안네의 이미지가 엿보였다. TT2는 표지와 속표지를 통해 주인공이 어린 소녀이고 실존 인물이었음을 보여주며, 순수한 소녀 안네의 이미지를 제시하였고, 역자후기는 따로 언급되지 않았다. TT3의 표지와 속표지에서는 무삭제 완전판이라는 가치를 부여하여 한층 더 성숙한 이미지가 느껴지는 숙녀 안네로 기획되었고 또한 잔혹했던 시대상을 상기시켜주기도 하였다. 역자후기에서도 단축판의 안네보다 적극적이고 대담한 이성관을 갖고 있는 안네의 이미지로 재구성한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었다.

다음으로 내용적인 특성 면에서는 우선 동일한 원전을 바탕으로 한 TT1과 TT2는 격식성, 이데올로기적 표현, 섬세한 감정표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먼저 격식성을 보면, TT1의 언어태도는 아주높임에 해당하는 합쇼체로 표현되면서 순종적이고 예절바른 안네의 이미지 구축에 주력하였음을 알 수 있었고, TT2에서는 아주낮춤 전략인 ‘해체’의 사용으로 감정에 솔직하고 친근한 소녀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었다. 이데올로기적 표현에서는 TT1은 당시의 남북대치 상황 속에서의 이데올로기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물로 재현되면서 소녀 안네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는 표현으로 나타났고, TT2는 군사통치 시절의 강력한 정치 이데올로기가 사라지고 원문의 내용에 충실하고 중립적인 표현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섬세한 감정표현에서는 TT1은 원문의 부분누락으로 인해 감정의 애절함이 원문만큼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으나, TT2는 원문보다 한층 더 섬세한 감정묘사를 통해 감수성이 풍부한 소녀 안네의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마지막 무삭제 완전판인 TT3에서는 “무삭제판”이라는 가치를 부여해 내용적인 측면에서 추가된 부분 위주로 살펴보았는데, 기존의 번역본보다 훨씬 애정에 대해 솔직한 감정표현이 두드러졌으며 이로 인해 성인 못지않은 성숙한 애정관을 지니고 있는 안네, 독립적인 여성상을 꿈꾸고 있는 안네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나가며

홀로코스트 문학이면서 청소년 문학과, 세계인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 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안네의 일기』는 네델란드어본이 1947년에 처음 출간되었고, 1952년에 영어 번역본이 나왔다. 그리고 그로부터 두해 뒤인 1954년, 당시 신생출판사였던 일조각에서 한국어 번역본이 처음 나왔는데, 텍스트를 직접 확인해볼 기회는 없었으나 전쟁 직후 남북대치 상황에 놓인 한국의 시대적 상황이 번역본의 생산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으리라 짐작해볼 수 있다. 르페브르(1992)가 이야기하였듯이 번역은 다시쓰기이고, 모든 다시쓰기는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는 각 텍스트가 생산된 시기에 따라 주인공이자 화자인 안네의 이미지가 어떻게 변화 또는 유지되는가를 관찰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각각 1960년, 2009년, 그리고 1995년에 출시된 세 편의 번역본을 선정하여 외형적 특성과 내용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세편의 비교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주인공 안네는 텍스트가 생산될 당시의 시대상황과 맥락에 따라 어리고 순진한 소녀로 그려지기도 하고, 성숙하고 독립적인 여성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이러한 이미지 변화는 텍스트의 안과 밖에서 긴밀하게 연동되어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는 서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번역이 어느 한 시점, 한 지점에 머물러 있는 고착화된 결과물이 아니라 텍스트를 둘러싼 시대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다시쓰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진화해가는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참고문헌

- 강지혜 (2007) 「출판 번역과 텍스트의 ‘재맥락화’: 『셀프헬프』의 번역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8(1): 7-36.
- 김병철 (1998) 『한국 현대 번역문학사 연구. 상, 하』, 서울: 을서문화사.
- 김순미 (2010) 「문학번역에서의 격식성(formality)의 변화」, 『번역학연구』 11(1): 127-159.

- 김희진 (2013) 「문학텍스트의 다시쓰기와 재수용, 라우라 에스키벨의 <달콤 짭썩한 초콜릿>에 나타나는 요리 문학적 수사기법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7(2): 1-22.
- 류진상 (2013) 「독일 망명문학으로서의 『안네 프랑크의 일기』」, 『혜세연구』 30: 89-110.
- 박선희 (2015) 「번역문의 결텍스트 - 주변 텍스트와 바깥텍스트에 대한 정의」, 『번역학연구』 16(1): 7-33.
- 이숙자 (2010) 「『테스』의 재번역/ 재출간에 대한 연구」, 문학석사 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임지현 외 (2000) 『우리 안의 파시즘』, 서울: 도서출판 삼인.
- 가이스, 페터 외 (김승렬 외 옮김): 『독일프랑스 공동역사교과서』, 동북아 역사재단 2008.
- Lefevere, Andre (1992) *Translation, Rewriting, and the Manipulation of Literary Fame*, New York: Routledge.

<분석 대상 텍스트>

- ST: Frank, Anne (1993) *ANNE FRANK: THE DIARY OF A YOUNG GIRL*.
New York: Bantam Books.
- TT1: 원창엽 옮김 (1960) 『안네의日記』, 서울: 동학사.
- TT2: 이진영 옮김 (2009) 『안네의 일기』, 서울: 문예출판사.
- TT3: 홍경호 옮김 (1995) 『무삭제 완전판 안네의 일기』, 서울: 문학사상사.

[Abstract]

Anne Frank: The Diary Of a Young Girl from the Perspective of Rewriting

Kim, Min-seo / Kim, Soonyoung
(Dongguk University-Seoul)

As Lefevere (1992) asserted, “translation is a rewriting of an original text.” Rewriters adapt, manipulate and (re)construct the images of an original to make them fit in with the dominant ideological and poetological currents of their time. Drawing upon this line of thinking, the current study aims to examine how the image of Anne Frank, the author and protagonist of *Anne Frank: The Diary Of a Young Girl* is (re)constructed in its Korean translations. Three translations were selected and compared to examine how they constructed Anne Frank’s image both paratextually and intra-textually. Paratextual features were examined in three aspects: cover, inner-cover, and translator’s note. Textual features were examined in aspects such as: politeness, ideological expressions, and emotive expressions. The paper discovered that TT1, translated in 1960, conveyed an image of Anne Frank conforming more to the post-war ideology and socio-cultural environment of the time. Anne Frank in TT2 was more girlish, friendly, and innocent, while TT3 constructed Anne as a more mature, independent woman. The study confirmed that translation is not fixed, word-to-word transfer process but a dynamic, evolving process adapting, manipulating, and (re)constructing the original to at least partially assimilate with the ideological and/or social currents of their time.

▶ Key Words: ideology, manipulation, paratexts, rewriting, (re)construction of image

김민서

동국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번역학전공

minseo5514@daum.net

관심분야: 문학번역

김순영

동국대학교 문과대학 영어통번역학과

kimsy@dongguk.edu

관심분야: 문학번역, 번역교육

논문투고일: 2017년 5월 10일

심사완료일: 2017년 6월 9일

게재확정일: 2017년 6월 12일